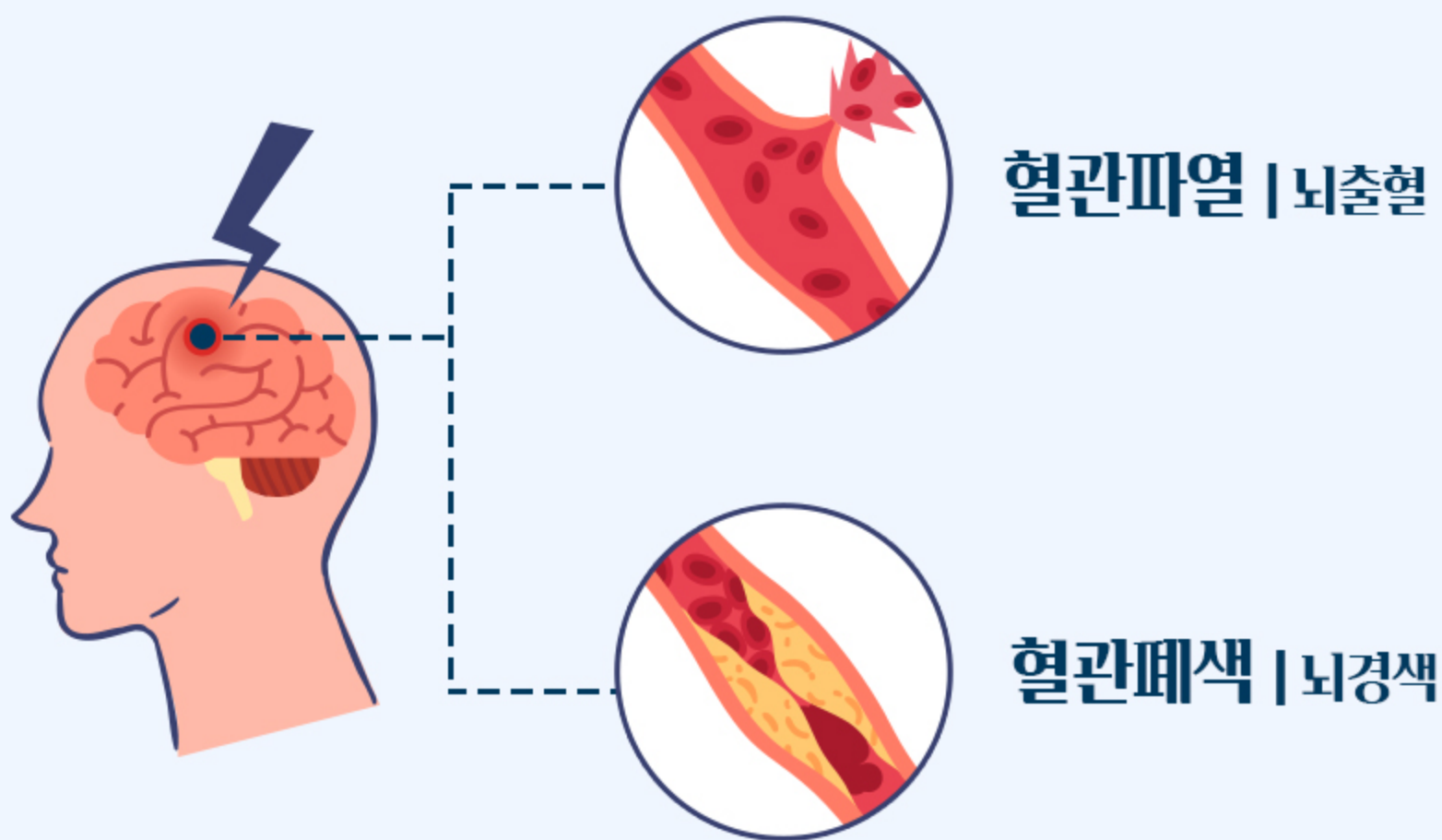


세계 뇌졸중의 날 캠페인
뇌졸중
극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터지거나, 막히거나)가 발생해 생기는 질환이야



뇌졸중을 극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증상이야.

대표적인 의심 증상으로는 안면마비,
편측마비, 실어증, 구음장애 등이 있어.

대표적인 뇌졸중 의심 증상



뇌졸중 환자 첫 증상의
80~90%는 “이웃손발시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좋겠지.

이웃 손 발 시선?

이웃



안면마비

손



편측 마비

발



발음장애와
실어증

시선



안구편위

혹시 뇌졸중 증상을 확인했다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뇌졸중센터로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해.

**뇌졸중센터는 급성기뇌졸중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증 받은 곳이라
지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뇌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1분에 200만개의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사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해.



뇌경색 골든 타임

정맥내 혈전용해술 : 증상 발생 4.5 시간 이내

동맥내 혈전제거술 : 증상 발생 6시간 이내



증상 속지!

발생하면 바로 뇌졸중센터 방문 필요!

만약 골든타임이 지났다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맥내 혈전제거술은
2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구약물치료도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아.



뇌졸중은 4명 중 1명이 발생하는 흔한
질병임과 동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후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야.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119 신고 혹은 뇌졸중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아.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뇌졸중센터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기획·구성 : 박순영 | 디자인 : 최승희

Copyright ©joongangilbo plus. All Rights Reserved.